

# 도깨비감투

글 | 김은파

그림 | 이소리

글 | 김은파

그림 | 이소리

편집 | 김은파, 이수인

편집 디자인 | 이해명

목소리 | 황창영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어요. 남편인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해서 팔고 아내는 바느질을  
해서 품삯을 받았지만 그래도 늘  
가난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나무를 하러  
아주 깊은 산속까지 들어갔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나무를 하다  
보니 어느새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어요.

‘아뿔싸,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나무꾼은 덜컥 겁이 났어요. 그때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나무꾼은  
급히 불빛을 향해 걸었어요.





그곳에는 모닥불을 피우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서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들이었어요! 깜짝 놀란  
나무꾼은 나무 뒤에 숨어서  
도깨비들을 몰래 지켜보았어요.  
도깨비들은 즐겁게 노래도 부르고  
춤도 쳤어요.





그때 한 도깨비가 감투를 머리에 썼어요. 그러자 순식간에 도깨비의 모습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다른 도깨비가 감투를 머리에 쓰니 이번에는 그 도깨비가 사라졌어요. 나무꾼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도깨비들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것을 구경했어요.





그러다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어요.  
온종일 나무를 하느라 몹시 피곤했던  
것이지요. 나무꾼이 아침에 눈을  
뜨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혹시 도깨비가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던 나무꾼은 땅에 떨어져  
있는 감투를 발견했어요. 나무꾼은  
감투를 집어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나무꾼은 감투를 쓴  
채로 방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시오?”

아내는 방문을 열고 나왔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이  
감투를 벗자 아내는 깜짝 놀랐어요.  
나무꾼은 아내에게 도깨비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나무꾼은 도깨비감투를 쓰고  
시장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보지 못 하니 뭐든 해도 될 것  
같았어요. 옛장수 옆을 지나면서  
옛을 하나 집어 들었고, 과일장수  
앞을 지나면서 배와 감을 하나씩  
훔쳤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 했어요.

‘이거 참 편리한걸? 이제 힘들게  
나무를 할 필요가 없겠어!’





나무꾼은 매일매일 감투를 쓰고  
시장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집어  
왔어요. 시장의 상인들은 자꾸만  
물건이 없어지는 것을 알았지만 누가  
가져가는 것인지는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잡히기만 해 봐라.”

상인들은 단단히 베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담배를  
피우다가 담뱃불로 감투에 구멍을  
내고 말았어요.

“아이고, 내 감투!”

아내는 빨간 천으로 구멍을 기워  
주었어요.





다음 날 나무꾼은 평소처럼 감투를 쓰고 시장에 갔어요. 나무꾼은 까맣게 몰랐어요. 자신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빨간 천은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것어요! 상인들은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빨간 천을 보았어요. 빨간 천이 지나가고 나면 물건들이 사라지고 없었어요.





“저게 바로 도둑이구나!”

상인들은 빨간 천을 둘러싸고  
몽둥이질을 했어요. 감투가 머리에서  
벗겨지자 나무꾼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상인들은 나무꾼을 흠씬  
두들겨 패고는 감투를 불에 태워  
버렸어요. 혼쭐이 난 나무꾼은 그  
후로 다시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았답니다.





“도깨비감투” is licensed under CC BY 4.0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 2019 by Enuma, Inc. & The Foundation SeeArt for Book Culture